

《漢韓大辭典》의 出典例文에 나타난 誤謬 研究*

崔泰勳**

〈목 차〉

1. 序 言
 - 1) 研究目的
 - 2) 研究方法
2. 出典例文의 問題分析
 - 1) 出典의 誤謬
 - 2) 出典에서 보이는 篇名의 誤謬
 - 3) 出典에서 보이는 篇數의 誤謬
 - 4) 作家의 歸屬朝代 表記 誤謬
 - 5) 作家 表記의 誤謬
 - 6) 出典의 先後排列 誤謬
 - 7) 後代에 出刊된 文獻을 第一 예증으로 삼는 誤謬
 - 8) 例文의 句讀點 誤謬
3. 結 言

1. 序 言

1) 研究目的

* 이 논문은 2010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1000000000371-N)

** 漢陽大學校 人文科學大學 修行人文學部 助教授

사전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출판물이다. 소위 ‘工具書’라고도 불리며 이름만으로도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우리는 일상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내용을 믿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사전에는 과연 아무 오류가 없을까? 또한 그 내용을 傳達하거나 학술적 根據로 삼아도 무방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름 있는 사전도 심각한 誤謬를 내포하고 있다. 몇 해 전에 檀國大學에서 完刊된 《漢韓大辭典》(전체 15권)도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연구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엄청난 분량 등으로 미루어 단연 東洋 最大の 사전임을 자부할 만은 하다. 그러나 細部로 들어가면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散見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사전은 일반적으로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漢韓大辭典》의 여러 곳에서 불합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 가운데 《漢韓大辭典》의 出典例文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나름의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항목에서 드러난 기타의 오류를 하나씩 언급해보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아울러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에서 동일 어휘 항목을 찾아 문제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目的은 출전예문의 오류를 밝히는데 있다. 사전의 출전예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출전예문이란 사전의 의미항목과 의미해석, 그리고 그 후면에 자리 잡고 있는 例證을 말한다. 이것은 사전 편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사전의 가치는 반감되고 만다. 마치 수학에서 $A=B$ 라는 명제가 있고, 이것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증명 과정이 바로 출전과 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수학 문제의 증명이 시원치 않다면 명제 자체의 정확성은 위협받게 된다. 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전과 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항목과 의미해석 부분은 그 정확성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漢韓大辭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문 고전을 독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을 만든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각 한자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출전과 예문이 확실한 어휘만을 수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국어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라도 출전과 예문이 없거나 근현대에 만들어진 어휘는 수록하지 않았다.”¹⁾ 이 같은 《漢韓大辭典》의 편찬 기본 방침을 통해 우리는 이 사전이 출전과 예문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출전과 예문을 통해 증명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것은 어휘로 선별하지도 않았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漢韓大辭典》은 편집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출전과 예문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出典 자체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 出典의 書名은 올바르게 적어 놓았지만 그 아래의 篇名, 篇數를 잘못 표기한 경우, 作者의 朝代를 혼동한 경우, 作者의 이름을 자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出典의 時代를 잘못 考證하는 경우 등이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기본적인 오류의 유형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앞날의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오류의 전달이 여러 학문 분야와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2) 研究方法

이 논문의 지면만으로 《漢韓大辭典》의 다양한 오류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定石대로 한다면 사전의 1권 1페이지부터 차례로 모든 문제를 찾아내어 수정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一個人이 해결할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가운데서 특히 출전예문에서 보이는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사전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다. 예를 들면 作者의 朝代, 作者의 성명, 작품명과 작품의 篇名, 篇數, 마지막으로 例文 등이 그것이다. 즉 분석 대상을 이것으로 한정

1)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년), 13쪽.

다는 요지이다.

둘째, 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필자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의미항목을 선별, 例示 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出典의 誤謬”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의미항목을 찾아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서 출간된 논문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설정한 기준으로만 문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관련된 기타 오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것이다. 즉 예를 든 의미항목의 출전예증에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들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설정한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넷째, 앞서 출간된 일본의 《大漢和辭典》, 대만의 《中文大辭典》, 중국의 《漢語大詞典》을 비교 분석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동일 의미항목에 대하여 세 사전이 과연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漢韓大辭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漢韓大辭典》은 3국의 사전을 상당 부분 참고한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에서 ‘제작된’ 《漢語大詞典》 컴퓨터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에서 타자를 쳐서 만든 것으로 인물이나 어휘 검색에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얻기 어렵겠지만 《漢韓大辭典》이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차용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漢語大詞典》 한글 판은 필자의 연구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四庫全書》가 청대 이후의 문헌 조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휘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을 조사하는 목적이라면 《四庫全書》 컴퓨터판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풍부한 문헌 자료가 보강 된다면, 필자의 논문을 통해 지적된 《漢韓大辭典》의 출전예문은 좀 더 구체적인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出典例文의 問題分析

1) 出典의 誤謬

出典의 誤謬는 가장 일반 적이고도 대표적인 사전의 잘못이다.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전의 권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漢韓大辭典》3권 1181페이지의 “多嫌” 항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多嫌: 몹시 혐오함. 五代, 齊己《閒居詩》每許題成晚, 多嫌雪阻期.

원래 이것은 齊己의 《次韻酬鄭谷郎中》이라는 詩이다. 그러나 齊己의 《閒居》²⁾와 唐 姚合의 《閒居》³⁾ 어디에도 “多嫌”이라는 어휘는 없다. 《全唐詩》 卷839에 소개된 齊己의 시를 살펴보면 《閒居》가 32번째 시이고 《次韻酬鄭谷郎中》이 33번째 詩이다. 아마도 동일 작자의 시가 《全唐詩》에 연달아 소개되어 있어 생긴 착오인 듯하다. 즉 齊己의 詩에 관한 1차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내용은 아래 것으로, 제목은 위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오류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일견 사소한 듯 보이지만 치명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다. 《漢韓大辭典》의 “多嫌” 항목의 오류는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多嫌” 항목의 出典이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閒居》가 詩의 이름이지 《閒居詩》가 이름이 될 수는 없다.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제》 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詩·詞·曲·套曲 등의 문학 작품은 제목에 詩나 詞자가 없더라도 제목의 끝에 詩나 詞를 붙여 제시하여 글의 성격

2) 齊己《閒居》: 林下高眠起, 相招得句时. 开门流水入, 静话鹭鸶知. 每许题成晚, 多嫌雪阻期. 西斋坐来久, 风竹撼疏篱.(인터넷 검색)

3) 姚合《閒居》: 不自识疏鄙, 终年住在城. 过门无马迹, 满宅是蝉声. 带病吟虽苦, 休官梦已清. 何当学禅观, 依止古先生.(인터넷 검색)

을 알 수 있게 하였다.”⁴⁾ 따라서 《漢韓大辭典》은 위와 같이 《閒居詩》라고 적은 것이다. 이것은 《漢韓大辭典》 편찬시의 편집체재상의 약속이다. 一種의 독자에 대한 배려라 할 것이다. 즉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편집자가 독자를 배려하여 좀 더 좋은 표기를 했다면, “齊己《閒居》詩”로 기재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漢韓大辭典》의 방식으로 꺾쇠 표시 안에 작품의 장르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작품을 예증으로 사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 예를 들어 《紅樓夢小說》이라고 왜 쓰지 않았을까? 《紅樓夢》이 유명한 작품이며 소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小說”이란 말을 생략하였다면, 유명한 작품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째서 다른 장르는 그 분야를 꺾쇠 표시 안에 설명하지 않고 유독 “詩·詞·曲·套曲”만 꺾쇠 표시 안에 설명하였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 작품의 장르를 설명해준 것은 사전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자면 齊己가 살았던 시기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齊己의 生卒 年代는 863년에 출생하여 937년에 사망하였다. 즉 齊己는 唐代(618~907)에 출생하여 五代(907~960)까지 생존한 인물인 것이다. 필자는 齊己가 이 詩를 쓴 정확한 年代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漢韓大辭典》 내에서도 齊己의 작품을 출전으로 인용한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그가 활동했던 조대를 唐代과 五代로 혼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漢韓大辭典》1권 “三都”(163), “三生石”(192), “三要”(213), “三千八萬”(238), “上客”(256), “上清”(284) 등에서는 齊己를 唐代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世眼”(402), “世幻”(407), “中私”(433), “五金”(669), “五字”(708) 항목에서는 五代로 표기하고 있다. 필자가 1권의 일정 부분만을 조사하였지만 이것은 《漢韓大辭典》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齊己의 朝代를 이 같이 唐代와 五代 두 가지로 표기하는 데는 각각 나름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먼저 唐代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

4)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齊己의 詩가 《全唐詩》에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齊己를 문학사적으로 唐代 사람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60년도 안 되는 五代에 비해 漢, 唐, 宋, 元, 明, 淸 등은 굵직한 조대이다. 따라서 齊己와 같이 양 조대를 살았던 사람은 시대구분에서 당으로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五代로 쓸 것이 아니라 唐代로 기재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五代를 사용해야함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死亡時點을 기준으로 활약한 조대를 기재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民國시기의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이 淸代에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국적을 民國으로 간주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점에도 예외가 있다. 康有爲는 民國시기에서도 살아있었지만 주 활동 시기는 淸代임으로 그를 淸人으로 보는 경우이다.)

齊己와 같이 兩 시대를 걸쳐 살았던 인물의 작품을 예증으로 사용할 시에는 우선 작품이 만들어진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시에는 근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元末明初”, “明末淸初”와 같이 “唐末五代初”라 적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作家的 歸屬朝代 記載 誤謬”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多嫌” 하나의 항목에서 필자는 크게는 출전의 문제, 작가는 작품이름 기재 방식의 문제와 국적 기재의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누구나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작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규칙과 고증이 없다면 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2) 出典에서 보이는 篇名の 誤謬

古代 文獻을 辭典의 出典으로 사용 시에는 書名 뿐만 아니라 서명 아래의 篇名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書名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篇名은 소홀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書名과 篇名을 정확히 하는 것은 辭典을 만드는 작업의 기본이다. 《漢韓大辭典》3권 45페이지의 “周章”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周章: ……4. 여러 곳을 돌아다님. ……晉, 葛洪《抱朴子·明本》開車
褰帷, 周章城邑.

《抱朴子》의 〈明本〉에는 “周章”이라는 어휘가 없다.⁵⁾ 이것은 《抱朴子·外篇·疾謬》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中文大辭典》(2권 698)과 《大漢和辭典》(2권 934)이다. 兩 사전에서는 명확히 晉, 葛洪 《抱朴子·外篇·疾謬》라 篇名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漢韓大辭典》의 오류는 《漢語大詞典》(3권 302)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기인하고 있다. 앞선 일본과 대만의 대형사전에 동일한 내용이 오류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 확인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와 비슷한 예는 곳곳에 보인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饑饉: 흉작.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 일. 《詩·小雅·雲漢》天降
喪亂, 饑饉降臻. …… (《漢韓大辭典》15권 348)

《詩·小雅·雲漢》에는 “饑饉”이라는 어휘는 없다.⁶⁾ 이것은 《詩·大雅·雲漢》에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中文大辭典》(10권 240)과 《大漢和辭典》(12권 428) 兩 사전에는 “饑饉” 항목의 출전을 오류 없이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이외에도 《漢韓大辭典》은 “饑饉” 항목의 예문 내용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은 “饑饉薦臻”이라고 기재하였으나 《漢韓大辭典》은 “饑饉降臻”이라 적고 있다. 이것 또한 수정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

위의 두 가지 “周章” “饑饉” 항목을 살펴보면 《漢韓大辭典》은 1차 자료에 대한 조사는 고사하고 기존의 日本과 臺灣의 대형사전과의 비교, 대조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漢韓大辭典》의 설명을 살펴보면 《中文大辭典》과 《大漢和辭典》 등 前代의 사전에 도움을

5) 龐月光, 〈漢語大詞典失誤管窺〉, 《北京教育學院學報》, 第2期(1996), 40쪽.

6) 吳金華, 〈漢語大詞典商補〉, 《南京師範大學報》, 第1期(1997), 132쪽.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고 언급하고 있다.⁷⁾ 그러나 비교, 대조를 통한 검증 절차도 없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것은 언젠가 《漢韓大辭典》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3) 出典에서 보이는 篇數의 誤謬

出典의 書名 아래에 몇 회 혹은 몇 折인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다. 비록 書名도 篇名도 아닌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것 역시 분명한 오류이다. 《漢韓大辭典》 1권 6페이지의 “一客不煩二主” 항목을 살펴보겠다.

一客不煩二主:(白) 한 사람의 손은 두 집을 번거롭게 하지 않음. 일을 혼자 도맡아 처리함. 《水滸傳, 3回》常言道, 一客不煩二主, 大官人便是出錢的, 這位娘子便是出力的.

위 예증의 내용은 《水滸傳》 3회에는 없다. 이것은 《水滸傳》24회의 내용이다. 《大漢和辭典》에는 “一客不煩二主” 항목이 없고, 《中文大辭典》에는 동일 어휘 항목이 있으나 예증이 없다. 《漢韓大辭典》의 오류 역시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오류가 왜 발생하였는가? 24회가 어떻게 3회로 바뀔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漢語大詞典》의 1권 59페이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客不犯二主: ……《西遊記》第三: “悟空道: ‘一客不犯二主, 若沒有, 我也定不出此門.’”

一客不煩二主: ……《水滸傳》第三: “常言道, 一客不煩二主, 大官人便是出錢的, 這位娘子便是出力的.”

우선 위 예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굵은 글씨를 주목해 주기 바란다.

7)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漢語大詞典》은 “一客不犯二主”와 “一客不煩二主”의 두 가지 항목을 위, 아래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 두 항목이 의미는 서로 같으며, “一客不犯二主”의 예증으로 《西遊記》第三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뒤이어 나온 “一客不煩二主” 항목에서 편집자들이 순간적인 착각으로 동일한 소설류인 《水滸傳》 역시 第三으로 기재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실수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나 書名이 바뀌고 篇名이 잘못 기재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오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漢韓大辭典》 12권 687페이지 “言外之味”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言外之味: 말에 나타난 뜻 이외의 깊은 의미. 淸, 王國維《人間詞話》22
 》古今詞人格調之高無如白石。惜不於意境上用力, 故覺無言外之味,
 弦外之響, 終落第二手.

위의 내용은 《人間詞話》22가 아니라 42의 내용이다. 그러나 왜 42가 22로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는 “言外之味”란 항목이 없다.

여기서 잠시 위 예증의 마지막 부분 “終落第二手”이 다섯 글자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人間詞話》의 판본을 살펴보면 “終落第二手”는 모두 “終不能與于第一流之作者也”로 적혀 있다. 중국학자 溫顯貴도 《漢語大詞典》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의 논문에서 “終落第二手”는 마땅히 “終不能與于第一流之作者也”로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본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人間詞話》의 항목42의 注를 살펴보면 “原稿以下最初爲: 終落第二手”⁹⁾라 적혀 있다.

일반적으로 문헌의 내용을 사전의 예증으로 쓸 때는 문헌의 최초 기록을 사용하거나, 혹은 가장 널리 유행한 대표적인 판본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溫顯貴의 주장은 문헌의 최초 기록을 고려하지

8) 溫顯貴, 〈漢語大詞典釋義和書證方面存在的問題〉, 《湖北大學學報》, 第3期, (1997), 79쪽: “終落第二手應是終不能與于第一流之作者也”

9) 黃霖等 導讀, 《人間詞話》(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0쪽.

않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즉 그가 “마땅히(應)”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사전은 일반적으로 어휘가 사용된 최초의 문헌을 第一 예증으로 삼고, 어휘 의미의 변천에 부합한 문헌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나열 제시해 주는 것이 모범적인 모습이다. 1차 資料가 없거나 1차 資料가 의심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後代의 문헌에서 出典의 문장을 발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言外之味”란 어휘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이 《人間詞話》가 가장 이른 작품인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사용해 조사를 해보았다. 결과는 明代 高攀龍 《高子遺書》에서 가장 빠른 예증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예증의 나열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言外之味: 말에 나타난 뜻 이외의 깊은 의미.

明. 高攀龍《高子遺書, 卷八上》易象經先生說明一字一句, 既知來歷, 今只味其言外之味, 受用無盡.

清. 王國維《人間詞話22》古今詞人格調之高無如白石. 惜不於意境上用功, 故覺無言外之味, 弦外之響, 終落第二手.

물론 明代 高攀龍의 《高子遺書》가 “言外之味”란 어휘를 담고 있는 최초의 문헌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四庫全書》 컴퓨터판의 조사조차 度外視 한다면 이것은 사전을 성실히 편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가 위와 같이 예증을 나열한 이유는 明代 高攀龍의 《高子遺書》는 《四庫全書》 컴퓨터판에 의할 것 같으면 “言外之味”를 담고 있는 最古의 문헌이며, 다음으로 清 王國維의 《人間詞話》를 언급한 것은 “言外之味”를 담고 있는 문헌가운데 비교적 有名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즉 “明”과 “清”의 시대구분과 “最古”와 “有名”이라는 이유로 예증을 삼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篇數의 오류로부터 출발하여 예증의 最初 판본 사용여부와 사용된 예증의 最古여부에 이르기까지 사전 편찬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미 위의 다른 예들 통해 알 수 있듯이 《漢韓大辭典》은 편수조차 《漢語大詞典》의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 作家의 歸屬朝代 表記 誤謬

우리는 이 論文의 첫 번째 내용 “多嫌” 항목에서 齊己의 朝代 표기 문제점을 잠시 언급하였다. 즉 위의 내용은 兩 時代를 걸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러한 오류는 다른 인물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倚門傍戶: 남의 집안에 의지한다는 뜻으로, 노복(奴僕)을 달리 이르는 말. ……明, 黃宗羲《明儒學案, 凡例》學問之道, 以各人自用得著者爲真. 凡倚門傍戶, 依樣葫蘆者, 非流俗之士, 則經生之業也. (《漢韓大辭典》1권 1202)

倚傍門戶: 어떤 문벌이나 단체에 의지함. ……清, 黃宗羲《答汪魏美問濟洞兩端爭端書》: 自立門戶者, 如子孫不藉先人之業, 赤手可以起家; 倚傍門戶者, 如奴僕占風望氣, 必較量主者之炎涼. (《漢韓大辭典》1권 1203)

“倚門傍戶”와 “倚傍門戶”를 살펴보면 모두 黃宗羲의 문장을 예증으로 삼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明代이고 하나는 清代로 기록되어 있다. 黃宗羲는 1610년에 출생하여 1695년에 사망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는 明末清初의 저명한 思想家이자 史學者이다. 그러나 그의 주 활동 시기는 淸으로 간주되며, 學術界에서도 그의 歸屬 朝代를 淸으로 보고 있다.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沈芝盈點校本 《明儒學案》을 살펴보면 작자의 朝代를 정확히 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漢韓大辭典》은 동일한 “倚” 항목에서 하나는 明으로, 하나는 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黃宗羲는 학계 나름의 함의로 清代人으로 간주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위에서 “明”으로 기록한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여 “淸”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齊己와 같은 인물은 唐과 五代 가운데 어느 朝代로 규정짓기가 까다로운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 편찬 시 적절한 규정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大漢和辭典》(1권 836)과 《中文大辭典》(1권 1066)은 “倚門傍戶” 항목만을 언

급하였으며 黃宗羲의 문장도 예증으로 삼지 않았다. 그 밖의 다른 유형을 아래와 같이 언급해 보겠다.

古代 文獻을 辭典의 出典으로 사용 시에는 마땅히 그 작품의 時代와 作者를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으로 확인 없이 접근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은 문제점은 사전의 권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漢韓大辭典》 8권 184페이지의 “沉幾” 항목을 살펴보겠다.

沉幾 : 사물의 은미한 징조. 三國吳王睿《將略論》孔明創蜀, 決沉機二
三策, 遽成鼎峙. 英雄之大略, 將帥之弘規也.(沉幾 두 번째 예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將略論》은 三國의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¹⁰⁾ 《後漢書·劉表傳》을 살펴보면 王睿는 일찍이 漢獻帝 初平 元年(190년)에 孫堅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¹¹⁾ 당시 諸葛孔明(181~234)은 열 살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 예문에서 말하는 “공명이 촉을 만들었다”(孔明創蜀)는 말은 시간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못 나라 王睿에 의해 쓰여 지지 않은 것이다. 《文苑英華》卷742를 찾아보면 《將略論》의 최초 기록이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將略論》의 王睿는 唐代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시대를 달리한 同名異人인 것이다.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서는 “沉幾”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漢韓大辭典》이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 없는 어휘 항목을 기재할 경우에는 1차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검증 작업이 선행되었어야만 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漢韓大辭典》 10권 1256페이지 “細條”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細條 : ㊦ 잔가지.……元, 方干《敘雪獻員外詩》風柳細條粘不得, 春溪
綠色蔽應難.

方干은 809년 출생하여 888년에 사망한 사람이다. 이 시기는 唐代

10) 吳金華 저, 《古文獻整理與古漢語研究》(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2쪽.

11) 컴퓨터판 《四庫全書》, 《後漢書》卷九: 孫堅殺荊州刺史王叡.

(618~907)에 해당하며 위의 내용은 마땅히 元이 아니라 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全唐詩》卷651의 여덟 번째 시를 살펴보면 《敘雪獻員外》의 전문이 나와 있다.¹²⁾ 이를 통해서도 方干이 분명 唐代人임을 확인할 수 있다. “細條” 항목은 《大漢和辭典》(8권 1016)과 《中文大辭典》(7권 327)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兩 사전에서는 唐이나 元 등의 시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사전에서 작가의 조대를 언급하는데도 여러 형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兩 朝代에 걸쳐 살았던 작가를 어느 시기로 귀속하느냐의 혼동도 있고, 시대를 달리한 同名異人으로 말미암은 문제도 있으며, 단순한 실수도 있다.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漢韓大辭典》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나름의 합의와 기준을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이라 생각된다.

5) 作家 表記의 誤謬

書名の 오류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作家의 이름 기재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작가를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 西漢末서부터 유행한 識緯書는 作者를 孔子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이름을 표기한 경우가 있다. 《漢韓大辭典》의 “濛鴻”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권 956페이지)

濛鴻 : 혼돈한 모양. 또는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 三國魏, 宋均《春秋命曆序》濛鴻萌兆, 渾渾混混.

《春秋命曆序》는 識緯書의 一種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作者는 알려진 바가 없다. 宋均은 《春秋命曆序》에 注를 가한 자이며 결코 이 文獻의 作者는 아닌 것이다.¹³⁾ 이런 오류는 文獻의 性質을 把握하지 않

12) 紛紜宛轉更堪看, 壓竹摧巢井徑漫. 風柳細條黏不得, 春溪綠色蔽應難. 清輝直認中庭月, 濕氣偏添半夜寒. 謝守來吟才更逸, 郢詞先至彩毫端.(인터넷 검색)

13) 《太平御覽》卷七十八 皇王部三, 人皇《春秋命曆序》曰: 人皇氏九頭, 駕六羽, 乘雲車, 出谷口, 分九州. 宋均注曰: 九頭, 兄弟九人. 이상과 같이 《太平御

아 초래한 문제점이다. 引用時에 주의하지 않고 注를 단 자를 作者로 誤認하여 기재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류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서 사용한 出典은 《漢韓大辭典》과 一致한 《春秋命曆序》이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사전은 宋均을 作者로서 기재하지 않고, 작자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즉 일본과 대만사전이 작자를 기재하지 않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漢韓大辭典》은 宋均을 작자로 지목한 것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다. 《漢韓大辭典》2권 907페이지를 살펴보면 “南紀” 항목이 있다.

南紀:⊖南戒와 같다. (중국과 남쪽의 이민족 사이를 가로 막는, 천연적인 경계인 산과 강-“南戒”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 唐, 韓愈《後苦寒行1》南紀巫廬瘴不絕, 太古以來無尺雪.

위의 예증을 검토해보면 이것은 杜甫의 《後苦寒行》二首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全唐詩》 卷222 30번째에 기재되어 있다.¹⁴⁾ 즉 韓愈의 시가 아닌 것이다. 《大漢和辭典》(2권 569)과 《中文大辭典》(2권 254) 兩 사전은 “南紀”의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나 杜甫의 《後苦寒行》을 예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漢韓大辭典》 5권 830페이지를 살펴보면 “懷抱” 항목이 있다.

懷抱:⊖ 가슴 앞. 품안. 두 팔을 안으로 구부려 안아서 생긴 공간.……唐. 元稹 《哭崔兒詩》懷抱又空天默默, 依前重作鄧攸身.

위의 예증을 검토해보면 이것은 白居易의 詩 《哭崔兒》이다. 元稹의 시가 아닌 것이다.¹⁵⁾ 白居易가 60의 나이에 아들을 잃고 울며 지은 작품이다. 이 시 역시 《全唐詩》 卷451 64번째에 보이고 있다. 《大漢和辭典》(4권 1222)과 《中文大辭典》(4권 300) 兩 사전은 “懷抱” 항목은 기

覽》이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송균이 《春秋命曆序》에 주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14) 南紀巫廬瘴不絕, 太古以來無尺雪. 蠻夷長老怨苦寒, 昆侖天矣凍應折. 玄猿口噤不能嘯, 白鵠翅垂眼流血. 安得春泥補地裂.

15) 朱茂漢, 〈漢語大詞典疏失舉證〉, 《贛南師範學院學報》, 第5期(1997), 71쪽.

재하고 있으나 白居易의 《哭崔兒》를 출전예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문헌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注를 가한 者를 작자로 오인하고, 또는 터무니없이 해당 작자와 작품을 엉뚱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出典의 先後排列 誤謬

하나의 어휘 항목에 여러 가지 文獻을 통해 그 출전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제》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한 글자나 어휘에 둘 이상의 예문을 수록할 때에는 字書·韻書와 經典의 출전을 가장 앞에 싣고 나머지는 편찬 시대 순으로 실었다.¹⁶⁾ 필자는 이러한 편찬 기준에 맞추어 《漢韓大辭典》 10권 537페이지의 “禮意” 항목을 살펴보겠다.

禮意: ㊦예의 진정한 의미.《書, 周官》塚宰掌邦治. 〈孔穎達疏〉此經言六卿所掌之事, 撮引周禮為之摠目, 或據禮文, 或取禮意, 雖言有小異, 義皆不殊. 《莊子, 大宗師》子貢趨而進曰, ‘敢問臨屍而哭, 禮乎. 二人相視而笑曰, 是惡知禮意.

《漢韓大辭典》의 편찬 기준에 입각하면 《書》는 경전에 해당함으로 예증의 가장 앞에 놓여야 마땅하다. 또한 《書》는 적어도 《莊子》가 나온 시기 보다는 앞선 문헌임으로 위의 예증은 겹보기에 별다른 오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書》에 가해진 孔穎達(574-648)의 疏에 있다. 孔穎達의 疏는 《莊子》보다 늦은 시기에 나온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영달은 당나라 초기의 학자이며 “禮意” 항목은 孔穎達의 疏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예증을 삼은 것이다. 즉 경전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漢韓大辭典》의 편찬 기준과 《書》가 《莊子》보다는 이른 시기의 문헌이라는 상식만을 염두 해 두고, 《書》를 첫 번째 출전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마땅히

16)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전후가 바뀌었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四庫全書》는 비록 사전은 아니지만, 수많은 책을 배열하는 문제에 있어서 옛 책에 주석을 붙인 경우에는 주석을 붙인 시대에 의하지 않고 옛 책의 시대를 따라 책의 순서를 배열 하였다. 이 같은 前例를 참고한다면, 《漢韓大辭典》도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출전과 예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中文大辭典》(6권 1495)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大漢和辭典》(8권 502)에서는 “禮意” 항목은 있으나 孔穎達 疏가 언급된 예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오류의 원류는 《中文大辭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漢語大詞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漢韓大辭典》이 차용한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意思: ⊖ 생각. 晉, 葛洪《抱朴子, 遐覽》雖充門人之灑掃, 既才識短淺, 又年尙少壯, 意思不專, 俗情未盡, 不能大有所得. 《三國志, 吳志, 陸遜傳》陸遜意思深長, 才堪負重.…… (5권 663)

위에서 언급한 《抱朴子》는 적어도 字書·韻書와 經典과는 관계가 없는 문헌이다. 즉 《漢韓大辭典》의 편찬 기준에 입각하여 《抱朴子》가 “意思” 항목의 첫째 예증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당위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抱朴子》와 《三國志》 두 문헌의 시간적 先後를 살펴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葛洪은 서기 283년 출생하여 363년에 사망한 사람이며 《抱朴子》가 완성된 시기는 318년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三國志》를 쓴 陳壽는 서기 233년에 출생하여 297년 사망하였다. 따라서 《抱朴子》의 예증을 《三國志》앞에 놓는 것은 시간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순서이다.

《大漢和辭典》(4권 1115)의 “意思” 항목을 살펴보면 예증으로 첫째 《論衡》, 둘째 《三國志·吳志·陸遜傳》, 셋째 한유의 《與馮宿論文書》가 나열되어 있다. 세 작품의 완성시기로 보았을 때 예증 배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中文大辭典》(4권 158)을 살펴보면 첫째 《三國志·吳

志·陸遜傳》, 둘째 《論衡》, 셋째 《抱朴子》, 넷째 한유의 《與馮宿論文書》가 배열되어 있다. 王充(27~97)이 살았던 시기를 고려한다면 《論衡》은 마땅히 《大漢和辭典》과 마찬가지로 첫째 예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中文大辭典》도 예증의 배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증의 나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사전편찬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원칙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규칙이다. 그러나 내용의 검증 없이 만들어진 각각의 어휘 항목의 예증들은 과연 규칙을 가지고 《漢韓大辭典》을 편찬했는지 조차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수정되어야 할 내용인 것이다.

7) 後代에 出刊된 文獻을 第一 예증으로 삼는 誤謬

《〈漢韓大辭典〉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제》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전의 선정은 고문헌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전적으로 하되,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歷代文人들의 詩文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¹⁷⁾ 그러나 사전이 선정한 출전이 後代의 것으로 판명되고, 그 보다는 훨씬 시간적으로 이른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詩文 가운데에 동일한 의미항목이 보이는 문헌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漢韓大辭典》 8권 525페이지 “深谷” 항목을 살펴보겠다.

深谷: 깊은 산골짜기. 晉, 陸機《從軍行》深谷邈無底, 崇山鬱嵯峨.

주지하다시피 陸機의 《從軍行》은 詩文으로 이것을 출전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晉代에 가서야 “深谷”라는 어휘가 처음 사용되었는가? 《漢韓大辭典》에서 언급한 위의 규정에서는 출전을 가장 이른 시대의 문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깊은 산골짜기”라는 의미로 “深谷”이 춘추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大漢和辭典》(7권 41)과 《中文大辭典》(5권 1257)

17)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深谷” 항목 첫 번째 출전을 살펴보면 모두 《詩經·小雅·十月之交》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詩經》은 陸機의 《從軍行》에 비해 “보편화된 전적”으로 여겨지며, 또한 經傳類에 속하는 문헌이다. 따라서 필자는 《詩經》을 예증으로 삼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생각한다. 좋은 사전의 출전은 歷史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 여러 문헌을 각 朝代별로 시간 순서에 맞춰 열거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가장 보편화된” 그리고 가장 이른 문헌을 출전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경우가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두 文獻의 出現 시기가 顯著한 시간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사전 편집자는 내용의 동일함만을 확인하고, 出典을 後代의 것으로 적어 놓은 誤謬가 종종 발생한다. 즉 후대에 出刊된 文獻을 原流로 삼는 현상이다. 《漢韓大辭典》 15권 158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顯訟：공공연히 꾸밈음. 《資治通鑒·漢成帝綏和元年》：“劉向自見得信於上，故常顯訟宗室……”

위의 문장은 《資治通鑒》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 원류는 《漢書·楚元王傳》 가운데 劉向傳에서 찾을 수 있다.¹⁸⁾ 옛 文獻을 버리고 후대의 文獻을 첫 번째 出典으로 삼은 것이다. “顯訟”은 漢代에 이미 出現한 語彙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漢書》를 첫 出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大漢和辭典》이나 《中文大辭典》에는 보이지 않는다. 《漢韓大辭典》은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예증의 역사성을 바로 잡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휘의 最古 원류를 《四庫全書》 컴퓨터판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다.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많은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18) 吳金華 著, 《古文獻整理與古漢語研究》(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4쪽.

8) 例文의 句讀點 誤謬

例文의 구두점은 사전을 만들 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구두점과 중국식 구두점에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고전을 예문으로 사용한다면 그들의 방식으로 문장을 나누는 것이 독자에게 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漢韓大辭典》의 예문에는 다양한 중국의 문장부호는 고사하고 올바르게 쉼표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 1권 347페이지를 보면 “不成” 항목이 보인다.

不成: 이루지 못함. 성취하지 못함. 《史記, 項羽本紀》項籍少時, 學書不成, 去學劍, 又不成.

中華書局標點本 《史記》를 통해 보면 위의 예문에 대한 정확한 중국식 구두점은 다음과 같다: “項籍少時, 學書不成, 去; 學劍, 又不成。”¹⁹⁾ 이것을 해석하면 “항우가 어렸을 때 글을 배우는 것을 이루지 못함에 버리고, 검을 배웠으나 또한 이루지 못했다.”이다. 즉 “去”를 “방치”나 “떠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漢韓大辭典》이 사용한 한국식 구두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문장을 살펴봐도 “去” 다음에 마땅히 쉼표를 찍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이것을 “去學劍”으로 연독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臺灣商務印書館의 《史記今註》를 보면 “去學劍”으로 붙여 쓰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표기를 하자면 필자의 생각에는 “去” 다음에 마땅히 쉼표를 찍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不成”의 예문은 《大漢和辭典》(1권 249), 《中文大辭典》(1권 347), 《漢語大辭典》(1권 407)에서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세 사전 모두 동일한 오류가 보이며 《漢韓大辭典》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서로 다른 語彙이나 같은 出典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각각의 경우마다 그 내용의 句讀點

19) 程志兵, <漢語大詞典釋義及書證商補>, 《新疆師範大學學報》, 第20卷, 第3期(1999. 7), 88쪽.

이 다르게 찍혀 있다. 다음을 비교해 본다.

滂沱： 눈물이나 피가 줄줄 흘러 내림.《三國志·蜀志·蔣琬傳》夜夢一牛，頭在門前，流血滂沱，意甚惡之.（《漢韓大辭典》 8권 734）

牛頭： ③(佛)지옥에 있다는 우두귀줄(牛頭鬼卒).《三國志·蜀志·蔣琬傳》..... 夜夢一牛頭在門前，流血滂沱，意甚惡之.（《漢韓大辭典》 9권 72）

이 두 가지 어휘는 같은 出典으로 例證을 삼았다.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그 例證의 句讀點이 서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것은 一牛 다음에 쉼표가 있고, 아래 것은 一牛頭 이후에 쉼표가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여도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사전 안에서 같은 문헌의 예증에 구두점이 달리 찍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大漢和辭典》(7권 173)과 《中文大辭典》(5권 1422)에서는 “滂沱” 항목의 예증을 “流血滂沱”라고만 간단히 기재하여 句讀點의 오류를 피해갔다. 또한 《大漢和辭典》(7권 617)과 《中文大辭典》(6권 93)의 “牛頭” 항목은 《漢韓大辭典》과는 다른 예증을 들었다.

이상과 같이 부주의에 의한 구두점의 오류를 살펴보았고, 서로 다른 어휘에서 동일 예문을 사용 시 구두점의 통일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내용들이며 섬세한 수정 보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3. 結 言

본 논문은 出典과 例文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漢韓大辭典》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필자는 본문에서 8가지로 나누어 《漢韓大辭典》의 出典과 例文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出典의 誤謬, 둘째 出典에서 보이는 篇名の 誤謬, 셋째 出典에서 보이는 篇數의 誤謬, 넷째 作家의 歸屬朝代 表記 誤謬, 다섯째 作家 表記의 誤謬, 여섯째 出典의 先後排列 誤謬, 일곱째 後代에 出刊된 文獻을 第一 예증으로 삼는 誤謬, 여덟째 例文의 句讀點 誤謬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는 어떤 것은 단순한 실수인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은 정확한 규칙과 원칙의 부재로 말미암은 문제도 있었다. 문헌의 성격을 이해 못한 경우도 있었고, 1차 자료와 前代의 여러 사전을 비교 검토함에 부주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結言”에서 다시 반복하여 그 내용의 요약은 피하겠다. 그러나 본문을 더 세분화하여 부연한다면, 이러한 오류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意味項目과 意味解釋은 있으나 출전과 예문 자체가 없는 항목이 있으며, 제시한 출전과 예문이 의미항목, 의미해석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언급한 문제도 있다. 本稿에서는 지면의 제한과 논증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형태의 예를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물론 어떠한 사전도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漢韓大辭典》 역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미루어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는 사전이 주는 권위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 결과물만을 믿는다. 어쩌면 문제를 알고 있어도 외면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전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두 암묵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독자로부터 암묵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전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漢韓大辭典》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각각의 절은 그 하나하나가 연구 테마가 될 것이며, 그 밖에 意味項目과 意味解釋에서 보이는 오류도 반드시 재 고찰 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의 문제를 수정하는 일은 文化史, 文學史, 文獻學, 文字學, 言語學 등 모든 학문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一個人이 사전의 오류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즉, 여러 전공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지속적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타 학문의 학술적 진전을 촉진할 것이며 이러한 학술 활동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서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2008년.
- 溫顯貴，〈漢語大詞典釋義和書證方面存在的問題〉，《湖北大學學報》，第3期，1997.
- 龐月光，〈漢語大詞典失誤管窺〉，《北京教育學院學報》，第2期，1996.
- 吳金華，〈漢語大詞典商補〉，《南京師範大學報》，第1期，1997.
- 朱茂漢，〈漢語大詞典疏失舉證〉，《贛南師範學院學報》，第5期，1997.
- 張能甫，〈漢語大詞典疏漏拾零〉，《四川師範大學學報》，第28卷，第2期，2001. 3.
- 程志兵，〈漢語大詞典釋義及書證商補〉，《新疆師範大學學報》，第20卷，第3期，1999. 7.
- 黃霖等 導讀，《人間詞話》，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
- 瀧川資言，《史記會注考證》，臺灣：天工書局，民國78.

[辭典]

- 《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出版部，2004年.
- 《漢語大詞典》，羅竹風，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1995年.
- 《中文大辭典》，林尹高明，臺北：中國文化大學出版部，民國82年.
- 《大漢和辭典》，諸橋轍次，東京：大修館書店，昭和59年.
- 《漢語大字典》，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著，四川：四川辭書出版社，1995年.
- 《辭海》，上海辭書出版社 編，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3年.
- 《辭源》，臺北：商務印書館，民國82年.
- 《康熙字典》，北京：北京燕山出版社，2006年.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about some errors of example sentences shown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dictionary cannot be overemphasized. Example sentences in the dictionary include all of the following parts: meanings, interpretations, and subsequent examples sentences. They hold an importance place in compiling a dictionary. If examples sentences are not accurate, the influences of the dictionary will be reduced by half. Contrary to the intentions of the dictionary editors,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has significant problems in terms of sources and example sentences. For example, some of the errors include mistaken sources, incorrect volumes or volume numbers with correct sources, confusion about authors' dynasties, inaccurate authors' names, erroneous periods of historical research, and so on. Therefor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readers with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by analyzing basic types of errors and to play a role in revising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in the near future.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the influences of these errors presented in the dictionary should not be transmitted in the various academic fields and to the following generations.

주제어 : 《漢韓大辭典》 《漢語大詞典》 《中文大辭典》
《大漢和辭典》 出典 例文 誤謬研究

투 고 일 : 2011.2.27
심 사 일 : 2011.3.10~4.10
게재확정일 : 2011.4.20